

2022년 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

본 문 : 고린도후서 5:18~21

제 목 :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화목’이 무엇인가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접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늘 함께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놓고서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는다든지, 원수를 맺고 있는다든지, 늘 불통하면서 산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하나님과도 결코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뭐가 먼저인가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죄 지은 누군가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인가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목에 대해서 연거푸 언급되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대신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에는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알아도, 그 죄값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부르느냐? **“값 없는 은혜”** 라고 부릅니다. “값 없는 은혜” 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도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며, 절대 인간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도,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값이라고 하는 건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야 하는 값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지옥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죄의 값이 먼저 치러져야지만 값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신 나머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 그 시간 만큼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린 건데 이것이 결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맘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과 전심의 마음으로 눈물과 사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도 물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죄값을 물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백이 기억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 설교

본 문 : 마태복음 21:1~11

제 목 : 주께서 쓰시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셔야 할 예수님께서 오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을 미리 다녀오시고, 그 광경을 보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의 상황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협력하는 순종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를 몸소 지키시려 노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에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무리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오늘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도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대꾸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why?” “왜요? 왜 나귀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건데요? 다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요? 그거 타시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나귀주인이 선선히 나귀 새끼를 우리에게 줄까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려 하면, 이런 토를 달고 예수님께 말대꾸라도 할 수 있고, 반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말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말뚝이 무너지면, 세상 물결, 죄악시되고 오염된 세상 문화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으셔도 대체 들어 쓸 수 없는 상태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세 번째 순종은 나귀주인의 순종입니다. 나귀주인의 순종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순종입니다. 아니, 누가 맡겨놨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이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가 재산 목록 1호 일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귀를 키우는 목적은 돈벌이 하는 데 있었습시다. 근데 순순히 내어줍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까지 쓸 거냐고 묻지도 않아요. 언제 반납할 거냐고. 이 곳으로 다시 갖고 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나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귀주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종은 나귀 새끼의 순종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러니 이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새끼이기에 짐을 지는 일에 길들여지지 못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싣고 가는 것에 충분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욕 39:7~8을 한 번 보십시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의 특징은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귀를 길들이려 소리를 질러대도 들나귀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에게 붙잡힌 듯 겸손히, 공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 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가 자신의 성향, 소욕,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겸손히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내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받들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거기서 역동적인 믿음이 나오고,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진실로 너희는 나를 좇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나의 길을 가고 있느냐?

2022년 4월 17일 《부 활 주 일》 설교

본 문 : 요한복음 11:25~26

제 목 : 죽음 뒤의 새 생명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보려 해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걸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한다고 해도 절대 답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은 해수면에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지구는 아마 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지는 결코 밝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단지 그 은혜는 힘입고 이 지구상에 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사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같은 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타 종교의 교주들도 나름대로 고난을 당하고, 선행을 베풀고, 죽을 때에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고난도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실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타 종교의 교주들이 죽었다 살아난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다들 신화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탄생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구원의 빛이 비취게 된 것이며,

둘째는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며,

셋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내려야 합니다.

요즘에 나무와 꽃들을 보니까 봄소식이 완연하게 전해집니다. 목련과 벚꽃이 이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축하라도 해 주기 위하여 애네들이 벌써 아름답게 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목련과 벚꽃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꽃은 시들고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에가 껍질과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부활은 영원한 부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인간의 두뇌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 속에서 항상 소망이 빛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19:1~10

제 목 : 주님 만난 기쁨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맞춰져 있는 삶이 바로 자녀 된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그 수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리라고 삭개오가 기대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지만, 무엇 하나라도 열정 없는 삶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셔도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셔도 열정 가지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실 때도, 찾아주는 사람만 만나신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직접 우물가로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직접 삭개오가 올라온 나무로 찾아오셨습시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외면이 아니요, 우리 겉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내면이요,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외면을 보신다면, 그 속에 내재된 열정을 보셨든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남의 이목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열등감을 열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열정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살펴볼 것은 **친절**입니다.

열정은 친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열정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말을 건네보기도 하게 됩니다. 친절도 열정이 있어야 해요. 특히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걸 예수님의 친절입니다. 사랑은 배려와 친절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대 놓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낯선 사람에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더욱 더 친절한 사랑으로 서로 나누시며 살아가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먼저 가서 웃는 모습으로 말씀도 건네주시고, 친절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여졌듯이 그 분의 마음도 움직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에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희가 평안하느냐?”**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평안을 끼치었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었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는 화평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들 죄인 취급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고 외롭습시다. 누군가에게 속 깊은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삭개오는 늘 근심 가운데 있었고, 늘 고독한 삶을 살았고, 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겁니다. 마음의 화평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2022년 5월 1일 《어 린 이 주 일》 설교

본 문 : 마가복음 10:13~16

제 목 : 존귀한 자녀들

어린이를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꽃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분장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어른처럼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순수함을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깨끗한 도화지는 그리는 대로 그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그것이 깨끗한 액체인지, 더러운 액체인지 구별하면서 빨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콩나물시루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들입니다. 콩나물시루 안에 물을 한 번 부어 보십시오.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콩나물들이 쑥쑥 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물은 이미 다 빠져나갔지만, 콩나물 뿌리가 물에 접촉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키가 쑥쑥 큰 아이들을 보며 "너 콩나물 많이 먹어서 키가 컸구나?"

저도 이 말을 한창 키가 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정말 콩나물에 키를 크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만, 그런 것은 아니고, 물에만 접촉하더라도 잘 자라나는 콩나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습기라는 것은 생물에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를 단 하나로 밝히고 있습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물이 없어서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막이 사막 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막이 사막 되는 것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어야 이것이 찬 공기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비가 지면에 내릴 텐데,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아이를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로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너무 빨리 알고, 어른들의 인간적 속성을 너무 빨리 배워 버려 변질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럴 때는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샘과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사막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순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때는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습기와 같습니다. 기도가 그냥 버려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기도에 접촉되어진 아이들은 남아 있는 기도의 습기를 통하여 변화되고,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나 올랜도에 가면 시월드(Sea World)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2 톤이 넘는 범고래가 3 미터가 훨씬 넘게 점프했다가 떨어집니다. 이 범고래 조련 비결은 혹독한 훈련이나 채찍이 아닙니다. 당근의 힘 즉 칭찬의 힘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조련사의 손에는 언제나 먹이가 들려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채찍도 늘 손에 쥐고 계십시오.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쥐어지듯이, 이렇게 양육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론 훈계도 하시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 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8일 《어 버 이 주 일》 설교

본 문 : 에베소서 6:1~3

제 목 :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야전군인이다.' 옳은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생애의 전부는 모두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한 노예이다.' 이 역시 옳은 말입니다. 부모는 청춘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바쳐 자식의 사슬에 매여 사랑의 노예, 노예 중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기도의 제 1번, 경제의 제 1번, 계획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빼고는 자식입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잘해드린 것 보다, 잘 못 다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머리 숙이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고백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님께 순종치 못해 죄송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는 주지 않는 사랑과 권위를 부모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자식이 거역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 보다, 많이 못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그 시대에는 제대로 교육받으셨던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대처하지 못하시고, 그저 살아오셨던 습관과 방식을 고집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자식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는, 자식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치유가 매우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준 상처는 꿇고 또 꿇아 속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도 부모는 그 상처와 염증을 떠안고, 또 그 자식을 품으려 합니다. 도려내고, 또 도려내어, 더 이상 자식을 품을 가슴이 없을 거 같은데도, 부모는 또 남겨진 그 가슴으로 불효자식을 품고자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를 찾습니까? 남기어진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부모는요, 자식을 찾습니다. 그 자식의 손을 꼭 붙잡고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후회할 날 오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세요.

둘째, 부모님을 공경치 못해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찮게 느껴질 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가요? 부모는 으레 자녀에게 그렇게 베풀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부모는 안 먹고, 못 먹고, 배 굶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만큼은 안 굶길려고, 먹이고자 했던 그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위해 하신 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읊어 볼까요? 삶바느질, 보따리 행상, 식모살이, 머리에 생선이고 집집마다 누비는 고기장사, 품팔이, 머슴살이, 지게별이, 리어카장사. 주름살은 깊게 패이고, 얼굴에 검버섯은 깊게 훈장처럼 새겨져 있고. 지금 세대야, 돈만 있으면 주름살도 펴는 보톡스도 맞을 수 있고, 검버섯을 제거하는 시술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 고생으로 인해 부모들은 늙고, 더러는 치매로, 골다공증, 당뇨, 심장병, 치명적인 암으로 쓰러져 계신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 졌어도 갚아야 하거늘 내 부모에게 신세 진 것 갚아야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받은바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모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5일 《청 년 주 일》 설교

본 문 : 여호수아 10:6~15

제 목 : 길갈은 예배의 제단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과 태양이 멈추어지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기적의 승리를 가져다준 전쟁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동정심과 긍휼을 유발시키게 해서, 여호수아를 깜빡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 있어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록 농락당하고, 속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지지해 주신 겁니다. 8절 말씀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여호수아를 기뻐하셨는지, 웬만하면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시는데, 이 전쟁에서는 두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우박을 내리시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언급합니다. 자! 이미 아모리 부족들, 아모리 연합군들은 전쟁다운 전쟁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우박 맞아 죽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가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어두워지면 전쟁은 힘들어요. 이 때 당시 조명탄이 있었겠습니까? 불 밝힐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때, 여호수아를 한 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어이가 없으면서도, 황당한, 아주 난처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자연의 질서를 깨라고요? 해는 늘 움직입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예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간청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최고 절정은 이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 함락 때도 아니었고, 요단강 건널 때도 아닙니다. 그 때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우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선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 주실 거 같은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사건과 승리와 기적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 가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그 다음 마지막 스토리도 길갈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출발도 길갈, 도착도 길갈.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 곳은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길갈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승리하고 난 후, 다시 예배의 장소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길갈에 있었으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예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길갈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도 예배에서 시작해야 하며, 마지막도 예배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설교

본 문 : 사무엘상 12:19~25

제 목 : 기도만이 살길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면서, 남의 탓만 하면서 요구사항만 많았던 사람들” 정작 본인들은 기도 안 하면서 선지자에게,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는 발견하지 못 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등. “잘 되면 자신의 탓, 잘 못 되면 선지자 탓.”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신 것인데, 정작 자신들이 깨닫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뭔가요? 보통 이방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나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왜 이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선민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아버지라 불러야 해요. 그럴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떠 올리고, 누군가에게 기도라도 부탁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언(代言)의 기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를 쉬는 두 가지 이유 중 첫째는 뭔가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다고 느낄 때,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즉시 응답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이 때는 기도 접습니다. “어차피 기도 접어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쉬는 이유 두 번째,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나서, “괜히 주었구나! 이럴 줄 알면 주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울무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응답이 울무가 되고, 선물이 울무가 되게 하는 건 우리 잘못입니다. 울무는 사탄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울무는 왕의 어인(御印)이 찍힌 조서였고, 사자굴이었습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나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왕의 방백들이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울무에서 다니엘을 꺼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무를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가시죠. 바울에게 주셨던 연약함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라는 가시. 이런 가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걸 울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와 울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울무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에 불들리게 하는 것은 가시고, 기도를 쉬게 하는 건 울무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불들리지 않으면 그 가시는 필경 나를 콕 찌르게 되어 있어요.

기도만이 살길임을 깨달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9일 《Home Coming Day》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15:20~24, 19:5~6

제 목 :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삭개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만남은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을 듣는 것 보다, 차라리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지요. 누군가에게 내가 보고 싶은 대상자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탕자의 비유를 한 번 볼까요? 한 번 이렇게 여쭙볼게요. 탕자가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 탕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사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그런 곳을 찾고자 하는 맘이 더 큰 겁니다. 아버지 보고 싶은 맘이 컸다면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라도 아버지를 찾아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탕자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평안할 때는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풍족하다 느끼고 있을 때는 보고 싶은 맘이 안 들어요. 왜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평상시에는 누군가가 생각도 잘 안 나고, 보고 싶은 마음도 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될 때, 누군가를 계속 찾고 싶은 맘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보고는 싶은데 별 면목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면목으로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내밀어? 난 못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탕자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탕자는 체면이나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을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할 정도면 탕자가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얼마나 진솔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보십시오. 어른이 돼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거든요. 많은 군중 틈에서 예수님을 보려면, 키 작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체면 생각했다면은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니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2년 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일을 잘 지키시던 분들이셨는데, 연락이 당지를 안 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오시려고 하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실 겁니다. 어색한 분위기, 낯선 교회. 모든 것이 다 생경(生硬)합니다. 2년여 동안 주일 성수를 내가 대면으로 하지 못했으니,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담백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이 같은 마음만 갖고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성도님들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다시금 예전의 신앙을 되찾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뿐 아니라, 아들의 지위, 자격, 다 회복되었고, 이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를 만난 것이 탕자에게는 기쁨이요, 축복 맞는 거죠.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남의 것 불의한 방법으로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기쁘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6월 5일 《성령강림주일》 설교

본 문 : 사도행전 3:1~10

제 목 : 성령의 사람

신앙도 어린 신앙이 있고, 유아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우리 육신과는 달리, 신앙의 장성함은 시간에 달려 있지 않아요. 수십 년을 믿어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 체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유아 신앙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다면은 어린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당시 베드로는 몸만 어른이지, 하는 짓이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 닦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어른이 할 소리입니까?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생활의 참맛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체험을 하고 난 후, 그때서야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시(九時)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제 삼시(三時)로 불리는 오전 9시, 그리고 구시로 불리는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9시라 불리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제일 바쁜 시간이며, 제일 무더운 시간입니다.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아직 6월 초인데도 이렇게 더우니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7-8월에는 얼마나 더울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오후 3시만 해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쬡니다. 오전 9시나 해 질 무렵은 그래도 기도하기가 좀 나아요. 오전 9시 때는 선선한 아침 바람이 그래도 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 질 무렵에는 그래도 덜 덥고 바쁜 게 마무리되니 기도하기 괜찮아요. 그런데 오후 3시는 무척 애매한 시간이며 바쁘고 무더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종일토록 하나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리해 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시간을 붙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못 하실 것이 없어요.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분은 인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님은 날 변화 시키지 못하시는 걸까!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되는데, 성령님이 좀 기도를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사인—시그널—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네 삶을 위해서도, 네 가족을 위해서도, 너는 필히 기도해야 한다고 사인을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고 놀랄 때가 가장 놀라운 때입니다. 못할 것 같았던 내가, 안 변할 것 같았던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 때가 가장 놀라운 때인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야마 스스로에게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와! 기도하면 주눅 들고, 기도하라 하면 잠만 잤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붙들어 매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다니!’ 야마 본인도 스스로 놀라면서 기도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도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교회도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앓은뱅이 모습, 혹시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음에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눌러 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런 앓은뱅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육신의 앓은뱅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앓은뱅이입니다. 신앙의 앓은뱅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2022년 6월 12일 《삼 위 일 체 주 일》 설교

본 문 : 히브리서 5:12~6:2

제 목 :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초보란, 미숙한 것을 말합니다. 서투른 것을 말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능숙하고, 숙련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다 초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초심과 초보는 같이 출발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초보와 초심은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향한 초심과 초보는 거의 꼭 갑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세상에 대하여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초심이나 초보 딱지를 떼고 익숙함이나 능숙함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초심과 초보는 같이 출발했다 할지라도,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심은 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 딱지는 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심은 잃어버리고, 믿음의 초보는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초보 신앙이었고, 초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두고 매너리즘에 빠져듭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못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초심은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모릅니다. 그게 미숙함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지 말라고 해도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몸만 어른이면 뭐합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 **“젖을 먹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의 신념을 버리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부터 다시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통독을 하고 말씀 필사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벌써 예수 믿은 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초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제때 믿음이 잘 자라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때에 제대로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이란, 이전의 나, 거듭나지 못했었던 나, 그 때의 잘못된 행실, 이 부분에서 있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도 타이밍입니다. 뭐든지 제 때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해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주기가 매우 애매해질 때가 많아요. 사과도 빨리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을 계속 늦추다보면, 오해의 소지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개도 제 때에 하십시오. 그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리라는 겁니다.

이전의 행실이 솔직히 잘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웅크리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내 안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쓴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뽑아도 뽑아도 또 자라나는 내 악한 본성의 쓴뿌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또 잘라내고, 또 뿌리 뽑으면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